



세계영어(World Englishes)와 국제공용 영어 문법 자질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중등 예비 영어교사들의 인식 조사*

황종배 (건국대학교)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Received: December 01, 2022

Revised: December 20, 2022

Accepted: December 30, 2022

Jong-Bai Hwang
Professor, Dept. of English
Education, Konkuk University
Tel: 02-450-3344
E-mail: jongbai@konkuk.ac.kr

*This paper was written as part of Konkuk University's research support program for its faculty on sabbatical leave in 2021.

ABSTRACT

Hwang, Jong-Bai. 2022. A study on secondary school pre-service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toward World Englishes and acceptability of common lexical and grammatical features of ELF.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22, 1494-1511.

The present study examines Korean secondary school pre-service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about World Englishes and the acceptability of common grammatical features of ELF. 64 students who are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English education at a college of education in Seoul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rough an online survey.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e participants' very positive attitude toward World Englishes. Even though they still showed preference for American or British English as standard English, a majority of the pre-service English teacher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teaching diverse types of Englishes in schools and acknowledged the ownership of English as belonging to all the speakers of English, whether native or non-native.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ho are secondary school pre-service English teachers, also showed positive about the acceptability of the common grammatical features of ELF, except two features (the confusing use of relative pronouns and the overuse of general verbs like *do*, *make*, *take*, etc.). A comparison between the participants who were aware of the concept of World Englishes and those who were not revealed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the perception of dropping the third person singular present tense morpheme *-s*. Based on the findings, some pedagogical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nd possible future research directions regarding World Englishes are presented.

KEYWORDS

English as a lingua franca, World Englishes, common grammatical features of ELF, Korean adult learners of English, pre-service English teachers, acceptability

1. 서론

우리의 국가 수준 영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영어는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널리 통용되고 있는 언어로서 서로 다른 언어 및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 사이의 주요한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성격을 부여하고 있고, “언어와 문화의 배경이 다른 세계인과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역량을 기르는 것”을 영어교육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교육부 2022, pp. 4-5). 영어에 대한 이러한 성격 규정과 목표 설정은 전 세계에서 영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80%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영어 사용자 간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Graddol 2006)에서 어찌 보면 당연하고 영어교육의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원어민 영어 화자(native speakers of English, NSE)와의 대화나 의사소통이 아닌 비원어민 영어 화자(non-native speakers of English, NNSE)와의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된 흐름이며, 이는 급속한 세계화 속에서 비원어민 영어 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영어 사용 양상의 급격한 변화는 세계영어(World Englishes),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 lingua franca, ELF), 국제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EIL) 등의 새로운 개념 혹은 학문 분야의 발전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일찍이 Kachru(1985, 1990)는 세계영어(World Englishes)의 개념을 제시하면서 내부권역(Inner Circle) 국가들의 소위 표준영어(Standard English) 관점에서 외부권역(Outer Circle) 혹은 확장권역(Expanding Circle) 국가들의 영어 변이형인 세계영어들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는데, Inner Circle 이외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영어의 다양한 변이형, 다시 말해, 세계영어에 대한 비판은 Inner Circle 국가들의 민족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Selinker(1972)의 전통적인 언어 분석 도구라고 할 수 있는 중간언어(interlanguage)와 오류분석(error analysis)에 바탕을 둔 잘못된 판단의 결과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Kilickaya 2009, p. 35).

영어 사용 국가들의 급속한 확정으로 인해 생겨난 세계 각지의 다양한 영어 변이형을 가리키는 세계영어의 개념에 포함되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모국어를 가진 사람들 사이의 접촉, 즉 의사소통을 위한 기능에 좀 더 초점을 둔 개념으로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ELF)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Jenkins 2000, 2002, 2007, Seidlhofer 2001, 2007, 2011).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연구는 특히 원어민 영어 화자들이 사용하는 것과는 다르지만, 비원어민 영어 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사용되는 공통적인 언어 자질(common features)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는데, 2000년대 초반에는 특히 발음과 화용론적 공통 자질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Jenkins(2000, 2002)는 비원어민 영어 화자들 사이의 상호작용 데이터에서 핵심 발음 공통 자질(Lingua Franca Core, LFC)을 추출하여 제시하였는데, 이것들은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들이 다른 비원어민 영어 화자들과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 발음 자질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가 보여주는 공통 자질 가운데 어휘와 문법의 요소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는 Seidlhofer(2004, 2007)에서 시작되었다. Seidlhofer(2007)는 다양한 모국어 배경을 가진 고급 수준의 성인 영어 사용자들의 대화와 담화, 토론, 인터뷰 등의 구어 자료로 구성된 최초의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코퍼스라고 할 수 있는 VOICE(Vienna-Oxford International Corpus of

English)를 바탕으로 소위 표준영어의 기준으로는 오류로 간주되지만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에서는 용인 가능한 공통 자질 9가지를 제시하였다. 3인칭 단수 현재 시제 형태소인 *-s*가 붙지 않는 동사의 사용이나 주절의 주어나 동사에 상관없이 부가의문문으로 *isn't it*을 사용하는 등의 문법 자질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다양한 배경의 모국어 화자들의 의사소통에서 전혀 의미의 오해나 대화의 단절을 초래하지 않는 것들로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관점에서는 전혀 어휘나 문법 사용의 오류로 간주되지 않는 요소들이다.

세계영어나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공통 자질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도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초·중·고 및 대학생들은 물론 영어 교사들의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물론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발음 및 어휘, 문법 자질에 대한 인식과 반응, 영어 교과서에 나타난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관련 요소의 분석 등 다양한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강성숙 외 2012, 남정미 2019, 변지현 2016, 송경숙 2011, 신효정 2021, 심영숙 2015, 조아름 외 2017, 황혜원 외 2015, H.-S. An 2017, H. Im, 2018, H.-J. Kim 2019, I. Lim et al. 2019, K. Sung 2019).

앞에서 언급했듯이, 세계영어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개념은 서로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세계영어는 세계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영어 변이형들의 개별적인 언어적 특성에 초점을 두는 반면,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는 비원어민 영어 화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한 공통적인 언어 자질에 좀 더 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많은 선행 연구들은 이 둘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채 용어를 교차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세계영어와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나 일반인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들 개념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것이 사실이다. 세계영어나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의 개념은 2000년대 이후 비교적 최근의 것으로 본격적인 연구 역시 최근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초·중·고 학생들이나 일반 대학생, 일반인, 심지어 교사 경력도 많은 영어교사들조차도 그 개념에 익숙하다고 할 수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이며 세계영어와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개념을 전공 수업에서 학습한 경험이 있는 미래의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이들 개념에 대한 인식을 탐구하고자 한다. 전공 수업의 과정에서 세계 각지 영어의 변이형에 대해서 익숙하게 잘 알고 있고,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개념과 공통 자질에 대해서 학습한 경험이 있는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학생들이 세계영어의 주장과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어휘 및 문법 자질의 수용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탐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다음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문제이다.

1.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예비 영어교사들의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2.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예비 영어교사들의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공통 문법 자질들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3. 세계영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예비 영어교사들과 알지 못하는 예비 영어교사들 사이에 세계영어와 국제공용 영어 문법 자질들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2. 이론적 배경

2.1 세계영어와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세계영어(World Englishes)’라는 용어는 Kachru(1976)에서 필리핀이나 남아시아, 서아프리카 등지의 제3세계 국가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영어 변이형들을 ‘제3세계 영어들(the Third World Englishes)’이라고 지칭하면서 통용되기 시작하였고, 비슷한 관점으로 Smith(1976)는 국제보조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n international auxiliary language, EIAL)’를 제안하면서 세계 각 지역의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영어 변이형에 대한 긍정적 수용을 촉구하였다. 다시 말해, 영어는 더 이상 미국이나 영국, 즉 소위 말하는 내부권역(Inner Circle) 국가의 소유가 아니고,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들은 더 이상 미국인이나 영국인처럼 말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며, 제2언어(second language)로서의 영어나 외국어(foreign language)로서의 영어를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Smith의 이러한 주장은 다음 언급에 잘 나타나 있다.

English is one of the languages of Japan, Korea, Micronesia, and the Philippines. It is one of the languages of the Republic of China, Thailand, and the United States. No one needs to become more like Americans, the British, the Australians, the Canadians or any other English speaker in order to lay claim on the language. To take the argument a step further, it isn't even necessary to appreciate the culture of a country whose principal language is English in order for one to use it effectively. ... English is a language of the world. If you accept this argument, then it is time to stop calling it a foreign language or second language. The name should be EIAL (English as an International Auxiliary Language) which more accurately reflects the present state of English language usage around the globe. (Smith 1976, p. 39)

미국영어 혹은 영국영어 중심의 표준 영어(standard English) 개념과 내부권역 영어 모국어 화자들의 영어 소유권에 대한 부정, 그리고 전 세계 비영어권 국가들에서 사용되는 영어 변이형들에 대한 정당성의 강조를 기반으로 하는 세계영어의 개념은 1980년대 이후 국제어로서의 영어(EIL)이나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ELF) 등 유사한 이론과 개념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다양한 문화와 모국어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의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특히 온라인을 통해, 급증하면서 실증적인 연구들이 축적되면서 이제는 독립적인 하나의 학문 영역으로 분명히 자리잡게 되었다.

세계영어의 개념이 내부권역 국가 중심의 단일언어적 혹은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세계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개별 영어 변이형(예를 들어, 인도 영어, 싱가포르 영어, 필리핀 영어, 나이지리아 영어 등)의 독자적인 언어적 특징에 초점을 둔 것이라면, 이와 유사한 개념인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는 다양한 모국어 배경의 영어 사용자들의 접촉 상황에 초점을 두고 의사소통의 상황에 따라 영어가 다양하게 조정되고 변화하는 영어의 유동적·가변적·상황의존적 특징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따라서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개념에서는 세계영어와는 달리 영어 사용자의 지리적 위치나 국가 경계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Galloway and Rose

2015, 심영숙 2020 재인용). Galloway와 Rose(2015)는 세계영어와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는 영어의 다중심(pluricentric) 개념을 수용하고, 언어 접촉에 따른 영향과 영어 비모국어 사용자들의 영어에 초점을 두면서 이들의 영어 소유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Jenkins(2015)는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의 패러다임은 세계영어의 패러다임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 둘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심영숙 2020, p. 104).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 역시 세계영어와 관련해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영어 관점에서 다양한 지역에서 사용되는 영어의 변이형들 사이에서 공통적 요소를 찾아내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그 중에서 비교적 초기에 이루어진 Jenkins(2000, 2002, 2006)의 일련의 연구들은 비모국어 영어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의 이해도(intelligibility)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요소들을 영어 공통어 발음 자질(Lingua Franca Core, LFC)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Jenkins는 그 밖에 일반적으로는 음성 혹은 음운상의 오류로 간주되어 왔던 ‘/ə/’나 ‘/ð/’와 같은 자음의 교체 사용이나, ‘dark [ɪ]’의 잘못된 사용, 그리고 full 모음 대신에 사용되는 schwa 사운드 등 7개를 비핵심 자질(non-core features)로 분류하고 이것들은 공통어 발음 자질에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것들은 비모국어 영어 사용자들의 상호작용의 이해도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들이라고 설명하였다. 음성·음운 영역 이외에 화용적인 측면에서도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Firth 1996, Meierkord 2002), 화용적인 언어의 사용은 워낙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명확하게 공통적인 특징을 찾기는 어렵지만, Seidlhofer(2004)는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상호작용에서는 의미의 오해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덜 발생한다”는 것과 같은 몇 가지 공통 자질들을 제시했다(p. 218).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공통어 자질에 대한 연구들 가운데 어휘와 문법 영역에서는 특히 Seidlhofer(2004, 2007)의 연구를 빼놓을 수 없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대학에서 개발된 VOICE는 다양한 모국어 배경을 가진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들 가운데 고급 수준의 성인 영어 사용자들의 직업 상황이나 교육 상황 등에서 수집된 대화와 담화, 토론,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의 구어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된 최초의 국제 공용어로서의 영어 코퍼스이다. Seidlhofer(2007)는 소위 전통적인 표준 영어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오류 혹은 비문법적인 영어의 사용이라고 취급될 수 있겠지만,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에서는 의미의 전달과 이해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수용 가능한 공통 자질로 다음과 같은 9개를 제시하였다(p. 220).

- 3인칭 단수 현재형 형태소 -s 탈락 (예, She look very sad.)
- 관계대명사 *who*와 *which*의 교체 사용 (예, a book who ..., a person which ...)
- 필요한 관사 생략 혹은 불필요한 관사 사용 (예, It is beautiful day.)
- ‘isn’t it?’이나 ‘no?’를 모든 부가의문문 대신 사용 (예, You’re coming, isn’t it?)
- 불필요한 전치사 사용 (예, We have to study about ...)
- 복수 형태소가 필요 없는 경우에 사용 (예, He gave too much homeworks.)
- 명사의 수와 상관없이 지시형용사 *this/that* 사용 (예, I’ve been to that countries.)
- *do, have, make, put*과 같은 의미 영역이 넓은 보편동사의 과잉 사용 (예, You should make a rest.)
- to부정사 대신 *that*절의 사용 (예, I want that ...)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연구 가운데 최근에는 아시아권의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들의 영어 공통 자질에 대한 연구도 주목할 만하다(Kirkpatrick 2012). Kirkpatrick은 아시아의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럽의 VOICE에 상응하는 아시아 영어 사용자들의 코퍼스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아시아의 영어 사용 상황을 반영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 문법 자질을 예로 들었다.

- 정관사와 부정관사의 생략이나 교체 사용 (예, *I know when we touch money issue it can be very controversial*)
- 수량을 나타내는 명사에 복수형태소 생략 (예, *one three time / four time a years*)
- 과거 시제 형태소의 생략 (예, *I couldn't see, that's why I just sit and take a rest*)
- 필요 없는 전치사의 사용 (예, *... and the second purpose is to seek for a discussion*)
- copula *be* 생략 (예, *once this blueprint adopted*)

2.2 세계영어와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한국 상황에서의 연구

2.2.1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

심영숙(2020)의 연구에 의하면 2019년까지 국내에서 출판된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다룬 논문은 총 46편이고, 이 중 다양한 지역의 변이형과 영어에 대한 소유권, 학교에서의 세계영어 교육 등의 일반적인 주제를 다룬 논문은 31편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중·고등학교의 영어교사 혹은 사범대학의 예비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는 않아 여기에서는 그 중 몇 편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심영숙(2015)은 총 78명의 중학교와 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세계영어의 다양한 발음, 세계영어 및 한국어, 그리고 세계영어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설문을 통해 조사하였다. 영어교사들은 세계영어의 발음 및 변이형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자신의 발음에 있어서는 소위 표준영어의 발음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학교에서의 세계영어 교육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은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많이 보였다. 특히, “영어를 우리나라 사람들의 언어라고 말할 수 있다”나 “한국영어도 미국영어나 영국영어나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 등의 영어에 대한 소유권 관련한 문항에 대해서는 7점 척도의 설문에서 평균이 각각 2.5와 3.6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한국의 영어교사들이 아직은 세계영어의 관점보다는 원어민 중심의 영어 관점을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Sung(2018)은 중등 예비 영어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영어 교육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특히 예비 영어교사들의 영어 능력이나 외부 권역(Outer Circle)이나 확장권역(Expanding Circle) 국가에서의 해외 연수 경험에 따른 인식 차이 여부를 조사하였는데, 중등 예비 영어교사들 중 영어 능력이 우수한 경우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해외 연수 경험이 있는 경우 세계영어를 더 잘 알고 있었고 수용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방형 문항과 인터뷰 자료에 대한 키워드와 내용 분석

결과를 보면 이들의 세계영어에 대한 개방성이나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미국영어(American English)에 대한 선호는 여전히 높게 나타났고 향후 학교에서의 세계영어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커리큘럼의 불확실성이나 평가의 어려움, 수업 내용의 증가 등에 대한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Yoon(2007)의 연구는 예비 영어교사들의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특히 예비 교사들과 일반 대학생들의 인식을 비교했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여주었다. 84명의 예비 교사들과 87명의 일반 대학생들 집단은 공통적으로 세계 각 지역의 영어 변이형들 가운데 배우고 싶은 영어로 미국영어를 절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모두 필리핀 영어에 대한 인지도가 높긴 했으나 필리핀 영어를 학습하기 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영어의 소유권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두 집단 모두에서 영어는 미국에 소유권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특히 예비 영어교사들이 일반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미국의 영어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절반을 넘는 학생들이 영어는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의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의 언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동시에 예비 영어교사들이 일반 대학생들보다 더 높은 비율로 영어의 소유권은 세계인들 모두에게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세계영어에 대한 한국 대학생들의 인식과 태도를 설문조사를 통해 탐구한 또 다른 연구로 남정미(2019)와 Kim 외 2인(2017)의 연구가 있다. 남정미(2019)의 연구에서는 526명의 교양영어 수강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세계영어라는 용어에는 친숙하지 않다는 응답을 하고 Korean English에 친근감을 표현하긴 했으나 막상 배우기를 희망하는 영어는 미국영어가 절대적으로 선호되는 결과를 보였다. 김명희(2017)의 연구 역시 한국 대학생들의 세계영어에 대한 태도를 해외 거주 경험과 영어 능력에 따라 조사하였는데, 289명의 여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은 세계영어의 개념에 대하여 그다지 잘 알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미국영어와 영국영어에 대한 압도적인 선호를 보였다. 단지, 영어 능력이 높거나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학생들의 경우 세계영어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였고 인도영어 등과 같은 영어의 변이형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2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어휘 및 문법 공통 자질에 대한 연구

세계영어와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의 개념은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앞에서 제시한 세계영어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의 고찰에서는 대체로 영어의 소유권을 비롯하여 Korean English를 포함하여 세계 각지의 영어 변이형, 혹은 미국영어 위주의 표준영어에 대한 국내 영어 학습자들이나 영어교사들의 인식과 태도를 중심으로 연구 결과들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는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의 개념과 가까운 비모국어 영어 사용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에서 발견되는 영어 어휘 및 문법 공통 자질에 대한 선행 연구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세계영어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을 분석한 심영숙(2020)의 연구에 의하면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 총 46편 가운데, 어휘나 문법 공통 자질에 관한 연구는 6편(3.8%)으로 초기의 발음에 관한 연구에서 점차 어휘와 문법까지 연구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pp. 116-117). 강성숙과 이상기(2012)의 연구는 국제공용어로서이 영어 공통 어휘 및 문법 자질에 대한 국내 연구 가운데 최초의 연구로서 1112명의 한국인 영어교사들 대상으로 Seidlhofer(2007)가 제시한 9가지 어휘 및 문법 자질의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수용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인 영어교사들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보였으나, 일부 자질들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연령이 낮을수록, 또한 교육 경력이 짧을수록 보다 관대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황혜원과 이길영(2015)의 연구 역시 매우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109명의 현직 그리고 예비 영어교사들을 대상으로 역시 강성숙과 이상기(2012)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어휘 및 문법 자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조사하였는데, 현직 교사들과 예비 교사들 모두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통 어휘 및 문법 자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성숙과 이상기(2012)의 연구와 황혜원과 이길영(2015)의 연구 결과와는 달리 Lim과 Hwang(2019)의 연구에서는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어휘 및 문법 자질에 대하여 276명의 대학생들은 비교적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두 연구와 마찬가지로 설문 참가 대학생들은 영어 원어민들이 사용하는 표준영어에 대한 선호를 보이면서도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역시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보였으나, Seidlhofer(2007)에서 제시한 9가지 어휘 및 문법 자질 이외에 구어 영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위 비표준적인 영어 문법 구조까지 포함한 총 19개의 어휘 및 문법 자질들의 사용에 대해서 다소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설문 참가자들이 주로 영어교육을 전공하는 대학생들로서 상당한 정도로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의 개념에 이미 익숙하거나 들어본 경험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설문 조사에는 서울 지역에 소재한 두 대학의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학생 64명이 참가하였다. 학년별 구성을 보면 1학년 15명, 2학년 22명, 3학년 20명, 그리고 4학년이 7명이었고, 연령대는 모두 20대였고, 남학생은 10명, 여학생이 54명으로 구성되었다. 1학년 학생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영어교육과의 전공 과목 수강 중에 세계영어 혹은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의 개념을 이미 학습한 상태라고 할 수 있으며, 1학년 학생들 가운데도 일부는 “영어학개론”이나 기타 과목을 통해 세계영어의 개념을 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연구 참여 학생들 가운데는 해외 여행 경험 이외에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수와 같은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은 없었다.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전달한 설문조사 웹사이트의 URL을 통해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학생들의 개인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었다.

3.2 연구 자료

본 연구는 온라인에서의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했으며, 온라인 설문은 크게 2개의 하위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는 세계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을 묻는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고, 두 번째 부분은 Kang과 Lee(2012), Hwang과 Lee(2015), 그리고 Lim과 Hwang(2019)에서 사용된 것과 같은 Seidlhofer(2007)의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어휘 및 문법 공통 자질 9개를 바탕으로 구성된 총 2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의 첫 번째 부분에 포함된 세계영어에 대한 진술문은 총 5개로 기존의 세계영어에 관한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했던 것들과 유사한 내용으로 (1) 세계영어에 대한 인지 여부, (2) 미국영어와 영국영어를 중심으로 한 표준영어에 대한 태도, (3) 학교에서의 세계영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반응, (4) 콩글리시(Konglish)나 싱글리시(Singlish) 등의 토착화된 지역별 변이형에 대한 학교에서의 교육 여부, 그리고 (5)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원어민 화자들의 영어에 대한 소유권의 타당성을 묻는 문항들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각각의 설문 항목의 진술문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의 5점 척도 가운데 하나에 표시를 하도록 설문이 구성되었다.

설문 조사의 두 번째 부분은 9개의 어휘 및 문법 자질들이 무작위로 3번 반복되도록 하여 총 27개의 영어 문장들이 제시되었고, 학생들은 각각의 문장이 영어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상황에서의 수용 가능성(acceptability)을 가장 낮은 1점(“절대 사용 불가”)부터 7점(“100% 사용 가능”)까지 총 7개의 척도 가운데 하나를 고르도록 구성되었다. 표 1은 설문 조사에 사용된 공통 어휘 및 문법 자질과 그 예이다.

표 1.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공통 어휘 및 문법 자질 설문 문항 예시

공통 어휘 및 문법 자질	문항 예시
(1) 3인칭 단수 현재형 형태소 -s 탈락	The girl go to church every Sunday.
(2) 관계대명사 <i>who</i> 와 <i>which</i> 의 교체 사용	Father bought a nice car who is expensive.
(3) 필요한 관사 생략 혹은 불필요한 관사 사용	I want to buy blue bicycle.
(4) 'isn't it?'이나 'no?'를 모든 부가의문문 대신 사용	She didn't buy the boo, isn't it?
(5) 불필요한 전치사 사용	I don't want to go to there.
(6) 복수 형태소가 필요 없는 경우에 사용	He gave me informations about the movie.
(7) 명사의 수와 상관없이 지시형용사 <i>this/that</i> 사용	I want to buy that books.
(8) 의미 영역이 넓은 보편동사의 과잉 사용	Why don't you make a walk now?
(9) to부정사 대신 <i>that</i> 절의 사용	I would like that I have the nice car.

3.3 자료 분석

본 연구에 참가한 중등 예비 영어교사, 즉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학생들의 응답 가운데 첫 번째 세계영어의 5가지 항목에 대한 응답은 각 항목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세계영어의 각각의 진술문에 대한 설문 참여자들의 응답을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빈도를 분석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를 1, “매우 그렇다”를 5점을 부여하여 각각의 설문 항목에 대한 평균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또한 세계영어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로 나누어 세계영어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의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s *t*-test)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의 두 번째 항목인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공통 어휘 및 문법 자질에 대해서도 각각의 자질에 대하여 1점(“절대 사용 불가”)부터 7점(“100% 사용 가능”)까지의 점수를 부여하여 각 자질별로 예비 영어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수용 가능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첫 번째 설문 항목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세계영어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는 학생들과 인지를 하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 각 자질별 수용 가능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역시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세계영어에 대한 예비 영어교사들의 인식

세계영어에 대한 설문은 학생들이 세계영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포함해서 총 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고, 각각의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으로,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얻은 결과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평균이 높게 나타난 설문 항목은 “나는 세계영어(World Englishes)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로서 평균이 5점 만점에 4.2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교육과정 이수 과정에서 1학년을 제외한 학생들의 경우에 대부분 세계영어의 개념을 접하고 학습했을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표 2. 세계영어에 대한 예비 영어교사들의 인식 설문 조사 결과

설문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1) 나는 세계영어(World Englishes)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다	64	4.25	1.098
(2) 나는 미국영어(American English)나 영국영어(British English)가 표준영어라고 생각한다	64	3.50	1.069
(3)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도 세계영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64	3.81	.889
(4) 콩글리시(Konglish), 칭글리시(Chinglish), 싱글리시(Singlish)와 같은 지역별 토착화된 영어는 학교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	64	2.69	.990
(5) 영어라는 언어의 소유권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native speakers)에게 있다	64	2.12	1.148

세계영어의 교육과 관련한 설문 항목에 대해서 예비 영어교사들인 설문 참가 학생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는데,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도 세계영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에 대해서는 평균이 3.8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콩글리시, 칭글리시, 싱글리시와 같은 지역별 토착화된 영어는 학교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평균이 2.69로 나타나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으나 이는 세계영어의 학교 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앞선 설문 항목과 마찬가지로 예비 영어교사들은 세계영어의 변이형, 혹은 토착화된 세계영어를 학교 영어 수업에서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세계영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영어의 소유권을 묻는 설문 항목에 대한 응답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영어라는 언어의 소유권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native speakers)에게 있다”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 평균은 2.12에 불과해 상당히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한편, 표 2에 제시된 세계영어에 대한 예비 영어교사들의 인식에서 주목할 만한 것으로 “표준영어”에 대한 인식과 영어의 소유권 혹은 세계영어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서로 상충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났다. “나는 미국영어(American English)나 영국영어(British English)가 표준영어라고 생각한다”라는 설문 항목에 대하여 설문 참가자들의 응답 평균은 3.50으로 나타난 점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학생들이 세계영어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도 표준적인 영어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미국어나 영국영어를 선택한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다시 말해, 표준영어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전 세계적인 다양한 변이형들에 초점을 두는 세계영어의 접근법에 대하여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뭔가 표준이 되는 언어는 있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고, 그 언어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던 미국어나 영국영어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하겠다.

세계영어에 대한 예비 영어교사들의 인식을 묻는 설문 문항 가운데 첫 번째, 즉 세계영어의 개념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항목에 대하여 학생들의 응답 평균은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4.25로 나타나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이미 세계영어의 개념을 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세계영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의 수가 각각 38명과 14명으로, 총 64명 가운데 52명의 학생들이 이미 세계영어의 개념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10명이었고,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은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보통이다”라고 응답한 학생 2명을 제외하고 총 62명의 응답자 가운데 52명을 세계영어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로, 10명을 세계영어의 개념을 인지하지 못하는 학생들로 집단을 구분하여 기타 4개의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을 묻는 문항에 대한 예비 영어교사들의 인식을 집단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표 3은 이러한 집단 간 비교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 3. 세계영어 개념의 인지 여부에 따른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 비교

설문 항목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2) 나는 미국영어(American English)나 영국영어(British English)가 표준영어라고 생각한다	인지	52	3.35	1.01
	비인지	10	4.00	1.16
(3) 우리나라의 학교에서도 세계영어를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인지	52	3.77	0.94
	비인지	10	4.00	0.67
(4) 콩글리시(Konglish), 칭글리시(Chinglish), 싱글리시(Singlish)와 같은 지역별 토착화된 영어는 학교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	인지	52	2.77	0.98
	비인지	10	2.20	1.03
(5) 영어라는 언어의 소유권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native speakers)에게 있다	인지	52	2.19	1.25
	비인지	10	2.00	0.00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을 묻는 설문 항목 가운데 세계영어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 가장 큰 평균 차이를 보이는 것은 미국영어와 영국영어를 표준영어라고 생각하느냐에 관한 것으로, 세계영어의 개념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평균이 3.35로

중간값이라고 할 수 있는 3.0을 약간 상회하는 반면, 세계영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학생들은 평균이 4.0으로 나타나 비교적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콩글리시나 싱글리시 등 지역별 토착화된 변이형에 대한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도 두 집단 모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가운데, 세계영어에 대해서 알고 있는 학생들의 평균이 2.77인 반면, 모르는 학생들은 평균이 2.20으로 훨씬 더 낮게 나타나 세계영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생들이 지역별 토착화된 영어의 학교 교육에 대해서 좀 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두 개의 설문 항목인 세계 영어의 학교 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영어의 소유권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세계영어의 개념에 대한 인식 여부에 따른 차이가 그다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한 결과를 보면, 집단 간에 가장 큰 차이가 있었던 “나는 미국어나 영국어가 표준영어라고 생각한다”는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t(60) = 1.837, p = .036$), “콩글리시나 칭글리시, 싱글리시와 같은 지역별 토착화된 영어는 학교에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t*검정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에 근접하게 나타났다($t(60) = -1.665, p = .051$). 반면 나머지 두 개의 설문 항목에 대해서는 *t*검정 결과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4.2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공통 어휘 및 문법 자질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공통 어휘 및 문법 자질들의 수용 가능성을 묻는 설문 문항은 9개의 자질과 관련되는 문장이 각각 3개씩 총 27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문장들이 가지는 수용 가능성을 1점(“절대 사용 불가”)부터 7점(“100% 사용 가능”)까지의 연속된 범주에서 설문 참가자들이 선택한 결과를 자질별로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세계영어에 대한 예비 영어교사들의 인식 설문 조사 결과

설문 항목	N	평균	표준편차
(1) 3인칭 단수 현재형 형태소 <i>-s</i> 탈락	64	5.67	1.16
(2) 관계대명사 <i>who</i> 와 <i>which</i> 의 교체 사용	64	3.58	1.40
(3) 필요한 관사 생략 혹은 불필요한 관사 사용	64	6.05	0.83
(4) ‘isn’t it?’이나 ‘no?’를 모든 부가의문문 대신 사용	64	5.03	1.08
(5) 불필요한 전치사 사용	64	5.49	1.09
(6) 복수 형태소가 필요 없는 경우에 사용	64	5.63	1.02
(7) 명사의 수와 상관없이 지시형용사 <i>this/that</i> 사용	64	5.44	0.94
(8) 의미 영역이 넓은 보편동사의 과잉 사용	64	3.91	1.21
(9) <i>to</i> 부정사 대신 <i>that</i> 절의 사용	64	5.20	1.04

7점 척도에서 중간값이 4라는 점을 고려할 때, 9개의 어휘 및 문법 자질들에 대한 수용 가능성에 대한 예비 영어교사들의 인식은 2개를 제외하고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대부분의 자질들에 대한 평균이 6.0을 넘거나 5.0을 넘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인식의 정도 역시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통적인 표준영어의 관점에서 특히 한국 학생들의 오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 관사와 관련한 자질에서 평균이 6.05로 가장 높게 나타나 예비 영어교사들은 관사의 정확한 사용이 의사소통에서 의미의 전달에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는 3인칭 단수 현재형 형태소인 -s의 탈락이 평균 5.67, 복수 형태소가 필요 없는 명사에 붙는 -s의 사용이 평균 5.63, 전치사의 불필요한 사용이 평균 5.49, 지시형용사 this나 that의 사용과 관련한 자질이 평균 5.44로 나타났다. 반면, do, make, have, take 등의 보편동사의 과잉 사용은 평균이 3.91, 관계대명사 who나 which의 교체 사용은 평균이 3.58에 그침으로써 이들 어휘 및 문법 자질에 대한 예비 영어교사들의 인식은 약간 부정적인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앞선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와 마찬가지로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공통 어휘 및 문법 자질의 수용 가능성에 있어서도 세계영어의 개념을 인지하고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각 자질별로 두 집단을 비교한 결과가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세계영어 개념의 인지 여부에 따른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 비교

설문 항목	집단	N	평균	표준편차
(1) 3인칭 단수 현재형 형태소 -s 탈락	인지	52	5.74	0.15
	비인지	10	5.07	0.51
(2) 관계대명사 who와 which의 교체 사용	인지	52	3.65	0.20
	비인지	10	3.40	0.41
(3) 필요한 관사 생략 혹은 불필요한 관사 사용	인지	52	6.10	0.12
	비인지	10	5.87	0.26
(4) 'isn't it?'이나 'no?'를 모든 부가의문문 대신 사용	인지	52	5.11	0.16
	비인지	10	4.66	0.22
(5) 불필요한 전치사 사용	인지	52	5.57	0.13
	비인지	10	5.73	0.25
(6) 복수 형태소가 필요 없는 경우에 사용	인지	52	5.67	0.15
	비인지	10	5.60	0.30
(7) 명사의 수와 상관없이 지시형용사 this/that 사용	인지	52	5.45	0.13
	비인지	10	5.60	0.27
(8) 의미 영역이 넓은 보편동사의 과잉 사용	인지	52	3.91	0.17
	비인지	10	4.20	0.35
(9) to부정사 대신 that절의 사용	인지	52	5.14	0.15
	비인지	10	5.53	0.29

세계영어의 개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집단과 알지 못하는 집단 사이의 차이가 가장 큰 자질은 3인칭 단수 현재형 형태소 -s의 탈락으로서 두 집단 사이에 0.67(인지 집단 5.74, 비인지 집단 5.07)의 차이를 보인다. 그 밖에는 모든 부가의문문에 'isn't it'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0.45(인지 집단 5.11, 비인지 집단 4.66)의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자질들의 경우에는 인지 집단과 비인지 집단 사이에 그다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 가지 특이한 것은, 물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겠지만, 몇몇 공통 어휘 및 문법 자질들의 경우에는 세계영어의 개념을 알고 있는 인지 집단보다 모르고 있는 비인지 집단이 인식하는 수용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전치사의 사용에 대해서 인지 집단은 평균이 5.57인 반면, 비인지 집단은 5.73, 지시형용사 this와 that의 사용 문제에 대해서는 인지 집단이 5.45, 비인지 집단이 5.60, to부정사구 대신 that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 집단이 5.14, 비인지

집단이 5.53의 평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공통 어휘 및 문법 자질에 대한 두 집단 간의 이러한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앞서 두 집단 사이의 평균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언급했던 3인칭 단수 현재형 형태소 *-s*의 탈락 자질에 대해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t(60) = -1.694, p = .048$), 다른 모든 자질들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다시 말해, 3인칭 단수 현재형 형태소 *-s*의 탈락에 대해서는 세계영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예비 영어교사들이 그렇지 않은 예비 영어교사들보다 해당 자질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도록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밖에 8가지 자질들에 대해서는 두 집단 사이에 수용 가능성의 인식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예비 영어교사들이 세계영어와 관련된 몇 가지 개념들과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공통 어휘 및 문법 자질들의 수용 가능성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세계영어에 대한 인식과 영어 공통 어휘 및 문법 자질들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각각에 대하여 세계영어에 대하여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비교 조사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 참여한 예비 영어교사들은 영어의 소유권을 비롯하여 세계영어 혹은 지역별 토착화된 영어의 변이형에 대한 학교에서의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비교해볼 때 우리의 영어 학습자들이 세계영어의 추세에 대하여 점점 더 관대해지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Lim과 Hwang(2019)의 연구에서는 우리의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이 여전히 내부권역(*Inner Circle*) 국가들에 의한 영어 소유권 혹은 원어민 중심주의의 경향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Kim 외 2인(2017)의 연구와 남정미(2019)의 연구에서도, 우리의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은 미국영어에 대한 절대적인 선호와 함께 세계영어에 대한 낮은 인식을 보여주었다. 반면,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같은 대학생이긴 하지만 영어교육 전공자들인 연구 참가자들은 세계영어에 대한 높은 인지와 함께 세계영어의 확산 혹은 학교에서의 교육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은 정도의 긍정적 인식을 보였다는 것은 향후 우리의 학교 영어교육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미래의 예비 영어교사들이 보여주는 세계영어에 대한 높은 관심과 관대한 인식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세계영어의 추세와 그에 따른 세계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교육과정의 개정이나 관련 교재의 개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에 따라 우리의 학교에서도 세계영어에 대한 교육 상황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물론 단순한 영어 학습자가 아닌, 학교 현장에서 영어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영어 교사 혹은 예비 영어교사들의 입장에서는 학교 영어교육에 세계영어의 개념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아직도 망설임이 클 것은 분명하다. 이는 황혜영, 이길영(2015)나 강성숙, 이상기(2012)의 연구에서 나타났고, 또 본 연구의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연구 참여자들은 세계영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지만 자신들이 영어를 가르칠 때의 기준 혹은 확립된 표준을 찾게 되고 그 경우 아직은 세계영어라는 다양한 변이형보다는 미국영어나 영국영어와 같은 기준에 확립된 표준 모델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물론 이러한 표준영어, 혹은 미국영어, 영국영어에 대한 교사 혹은 예비교사들의 의존 역시 향후 세계영어의 개념이 더욱 확산되고 발전하게 되면 많이 줄어들 것은 분명하며, 그러한 변화의 흐름이 본 연구의 결과에서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공통 어휘 및 문법 자질들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예비 영어교사들의 인식 조사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2개의 자질(관계대명사와 보편동사)을 제외하고는 상당히 긍정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은 3인칭 단수 현재형 형태소인 -s의 탈락을 제외하고는 연구 참가자들인 예비 영어교사들의 세계영어의 개념에 대한 인지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Lim과 Hwang(2019)의 연구에서 대학생 학습자들의 영어 공통 어휘 및 문법 자질들에 대한 판단이 부정적이지는 않지만 비교적 중립적이었던 것에 비해 수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긍정적인 쪽으로 기운 결과라고 할 수 있어, 역시 일반 대학생들과 예비 영어교사들의 인식 차이 혹은 세계영어 혹은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의 추세 변화로 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교사들의 영어 공통 자질들의 용인성과 교정 필요성을 연구한 강성숙, 이상기(2012)의 연구에서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유보적인 입장이 강하게 나타났고, 황혜원, 이길영(2015)의 연구에서는 영어교사들의 인식과 태도가 점점 더 긍정적이고 수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여주는 예비 영어교사들의 상당히 긍정적 인식은 당연한 시대적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학습과 교육의 환경이 미국과 영국 혹은 내부권역 영어 원어민 화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에서 점차 비원어민 영어 사용자들과의 의사소통으로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에도 세계영어에 대한 학습자들의 인식과 태도,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공통 어휘 및 문법 자질에 대한 학습자들의 수용성은 점차 긍정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라 우리의 영어교육 교수·학습과 평가, 영어 교재의 개발, 영어교육 정책에 이르기까지 영어교육의 모든 측면에서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세계영어의 흐름 속에서 점차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예비 영어교사들의 인식과 태도, 그리고 국제공용어로서의 공통 어휘 및 문법 자질들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의 수가 수십명에 불과하고 특히 세계영어의 개념에 대한 인지 여부에서 비인지 집단의 수가 너무 적다는 점은 본 연구의 연구 결과 해석에 상당한 한계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세계영어에 대한 예비 영어교사들의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설문 참가자를 확보하고 세계영어에 대한 인지 여부를 좀 더 정교하게 디자인하여 의미 있는 비교 연구가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강성숙, 이상기(Kang, Seong-Suk and Sang-Ki Lee). 2012.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공통어 자질에 대한 한국인 영어 교사의 인식 및 태도 조사: 어휘 및 문법 요소를 중심으로(A survey of Korean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and attitudes about the common features of English as a lingua franca: Focusing on the lexical and grammatical features). 《영어학》(*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2-3, 379-401.
-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202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General Guidelines of the National Curriculum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국민소통채널 탑재용.
- 남정미(Nam, Jung-Mi). 2019. 세계영어(World Englishes)와 한국 영어교육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인식 조사(Attitudes and perceptions of Korean college students toward world Englishes and current English teaching in Korea). 《영어교육》(*English Language Teaching*) 31(3), 111-126.
- 변지현(Byun, Ji Hyun). 2016. World Englishes에 대한 EFL 대학생 학습자 인식 조사(Korean EFL college learners' perspectives toward World Englishes).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5(4), 83-104.
- 송경숙(Song, Kyong-Sook). 2011. 국제사회 영어에 대한 대학생들의 언어태도: 세계 영어를 교육을 중심으로(University students' language attitudes toward global society English: Teaching World Englishes). 《영어학》(*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11(3), 497-519.
- 신효정(Shin, Hyojung). 2021. 한국 대학생들의 ELF(English as a Lingua Franca) 사용 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Korean university students' usage, awareness and attitudes toward ELF). *Korean Journal of General Education* 15(5), 185-197. <https://doi.org/10.46392/kjge.2021.15.5.185>
- 심영숙(Shim, Y.). 2015. 세계영어에 대한 중등 영어교사 인식 연구(Korean EFL teachers' perceptions of world Englishes). 《응용언어학》(*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31(1), 149-172.
- 심영숙(Shim, Y.). 2020. 세계영어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분석(Trend analysis of world Englishes research published in Korean domestic journals). 《응용언어학》(*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36(3), 99-125.
- 조아름, 이제영, 김정렬(Jo, Ahreum, Je-Young Lee and Jeong-ryeol Kim). 2017. 세계 영어(World Englishes)에 대한 한국 초등학생의 인식과 태도(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s world English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1), 255-263.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11.33>
- 황혜원, 이길영(Hwang, H. and K. Lee). 2015. 국제공용어로서의 영어: 교사의 인식과 어휘 및 문법 자질에 대한 반응 연구(English as a lingua franca (ELF): A study on teachers' awareness and response to common lexical and grammatical features). 《영어교과교육》

- (*Journal of the Korea English Education Society*) 14(3), 263–283.
- An, Hyo Seon. 2017. A profile of in-service Korean EFL teachers' attitudes toward world Englishes. *Studies in English Education* 22(3), 1–26.
- Choi, K. 2007. Study on students' attitude towards World Englishes and nonnative English teachers. *English Teaching* 62(4), 47–68.
- Firth, A. 1996. The discursive accomplishment of normality: On “lingua franca” English and conversation analysis. *Journal of Pragmatics* 26, 237–259.
- Graddol, D. 2006. *English Next*. London: The British Council.
- Im, Hyunsun. 2018. Perceptions of World English: Different attitudes from Inner and Expanding Circles,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24(1), 35–56.
- Jenkins, J. 2000. *The Phonology of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UK: Oxford University Press.
- Jenkins, J. 2002. A sociolinguistically based, empirically researched pronunciation syllabus for 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Applied Linguistics* 23, 83–103.
- Jenkins, J. 2006. Current perspectives on teaching World Englishes and English as a lingua franca. *TESOL Quarterly* 40(1), 157–181. doi: 10.2307/40264515.
- Jenkins, J. 2007. *English as a Lingua Franca: Attitude and Ident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Kachru, B. B. 1985. Standards, codification and sociolinguistic realism: The English language in the outer circle. In R. Quirk and H. G. Widdowson, eds., *English in the World: Teaching and Learning the Language and Literatures*, 11–3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achru, B. B. 1990. World Englishes and applied linguistics. *World Englishes* 9(1), 3–20.
- Kilickaya, F. 2009. Guidelines to evaluate cultural contents in textbooks. *The Internet TESL Journal* 10(2). <http://iteslj.org/Techniques/Kilickya-Culturalcontent/>
- Kim, H.-J. 2019.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world Englishes. *Studies in Linguistics* 53, 181–204.
- Kim, Myonghee, Hwakyung Lee and Nam-Joon Kang. 2017. Korean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f World Englishes. *The Journal of Linguistic Science* 80. DOI: <http://dx.doi.org/10.21296/jls.2017.03.80.17>
- Kirkpatrick, A. 2012. English as an Asian lingua franca: The lingua franca approach and implications for language education policy. *Journal of English as a Lingua Franca* 1(1), 121–140.
- Lim, I. and J. Hwang. 2019. Korean adult English learners' perceptions of the common grammatical features of English as a lingua franca. *The Journal of Asia TEFL* 16(3), 876–893.
- Meierkord, C. 2002. ‘Language stripped bare’ or linguistic masala? Culture in lingua franca communication. In K. Knapp and C. Meierkord, eds., *Lingua Franca Communication*, 109–133. Frankfurt: Peter Lang.
- Seidlhofer, B. 2001. Closing a conceptual gap: The case for a description of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ternational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11(2), 133–158.

- Seidlhofer, B. 2004. Research perspectives on teaching English as a lingua franca. *Annu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24, 209–239.
- Seidlhofer, B. 2007. Common property: English as a lingua franca in Europe. In J. Cummins, ed., *International Handbook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137–153. Dordrecht: Springer.
- Seidlhofer, B. 2011. *Understanding English as a Lingua Franca: A Complete Introduction to the Theoretical Nature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English Used as a Lingua Franc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elinker, L. 1972. Interlanguag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10, 209–231.
- Smith, L. E. 1976. English as an international auxiliary language. *RELC Journal* 7(2), 38–42.
- Sung, K. W. 2018. Secondary pre-service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of learning and use of diverse English and willingness to teach World Englishes. *Korean Journal of Applied Linguistics* 34(3), 267–301.
- Yoon, H. 2007.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of World Englishes: Implications for teacher training. *Studies i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49(1), 171–190.

Examples in: English

Applicable Languages: English

Applicable level: Tertiary